

나주 어팔진미·소팔진미, '목사밥상'으로 재탄생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 새 단장...민간 위탁 운영 전환 한상 체험 등 음식·관광·문화 융복합 '앵커 스토어' 탈바꿈

조선시대 임금님도 반한 나주 '어팔진미' (魚八珍味), '소팔진미' (蔬八珍味) 진상품 식재료를 사용한 나주 고유의 체험 밥상을 맛볼 수 있게 됐다.

나주시는 음식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음식·관광·문화를 융복합한 핵심 상점(앵커스토어·anchor store)으로 탈바꿈했다고 4일 밝혔다.

2016년 처음 개관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은 그동안 직영으로 운영해 왔으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2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문화관에 연 산간과 나주평야의 향토색 짙은 음식 자원을 활용해 '목사(牧使·현제 광역단체장급) 밥상'을 새롭게 선보인다.

목사밥상은 나주의 옛 지방 수령과 방백들이 임금께 진상한 것으로 전해지는 고급 음식인 '어팔진미'와 '소팔진미'에서 착안해 개발한 1인 한상차림이다.

어팔진미는 영산강과 그 지류인 황룡강, 몽탄강에서 잡아 진상한 참게·송어·뱅어·옹어·잉어·자라·장어·복어로 조리한 음식이다.

소팔진미는 영산강 유역 기암절벽 토양과 나주평야에서 생산한 미나리·마늘·두부·복두묵·생강·참기름·열무·겨우살이로 만든 채소 중심의 음식을 의미한다.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은 목사밥상 체험관 운영, 도시락·밀키트·디저트 등 먹거리 상품 개발과 함께 나주읍성 투어, 다이나닝, 숙박 등을 연계한다.

문화관 위탁 운영자는 전국 12대 중가 중 하나인

'나주 남파고택' 9대 종부인 강정숙씨다. 향토음식 문화 계승에 힘쓴 인물이다.

강정숙 종부는 "나주에서 생산한 싱싱한 제철 식재료와 잊혀 가는 지역 향토음식을 나주만의 독특한 음식문화로 이어가고자 한다"며 "목사밥상 차림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사밥상은 목은 배추김치, 흥갓김치, 호박고지·시금치나물, 한우 갈비찜, 집장, 물김치, 장조림, 육전·굴전, 전복찌, 밥, 한우 우족국으로 한 상 가득 차려진다.

개관식 자리에서 운영태 나주시장은 "나주는 예로부터 기름진 나주평야 농산물과 서남해안으로 연결된 영산강의 수산물을 기반으로 풍부한 음식문화가 형성된 지역"이라며 "향토음식체험문화관을 중심으로 음식관광이 500만 관광객 도시 완성의 중심축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 향토음식체험문화관에서 맛볼 수 있는 '목사밥상' 한상 차림.

강진군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안착했다

매입 디지털화 투명·효율성 높여 전국 지자체·농협 등 확대 가능성

강진군이 전국 최초로 구축한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이 성공적인 현장 검증으로 타 지자체·농협 등 확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 플랫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국비 10억원 전액을 지원받아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을 디지털화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했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강진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강진군은 지난 11월 11일부터 진행된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에서 이 플랫폼을 처음으로 현장에 적용했다.

기존의 수기 작성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 서명과 전자 매입증명서 발급 등 디지털 프로세스를 도입해 물량 집계 오류를 제거하고 실시간으로 매입 수량과 등급 현황을 공유하며 업무 효율을 크게 증대시켰다.

현장 검증을 담당했던 강진군 관계자는 "플랫폼 도입 이후 공공비축미 매입 과정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졌다"며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면서 매입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은 농민들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군 농민 박정용 씨는 "예전에는 공공비축미를 납품한 뒤 종이로 매입증명서를 받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다"며 "4차산업기술이 농업에도 접목돼 점점 편리해지고 있음을 체감한다"고 말했다.



강진군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모의수매와 실제 현장.

강진군의 성공적인 사례는 중앙부처와 다른 지자체·농협에도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강진군의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 적용 현황을 방문했던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남도, 충청북도 관계자는 "강진군의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은 농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 플랫폼을 도입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강진군은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이 단순히 매입 절차를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플랫폼 개발에 참여한 다온플레이스의 ICT 전문가 박주현 대표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이번 플랫폼은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화된 공공비축미 매입 정보는 향후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연계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데이터 중심의 식량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진군의 디지털 공공비축미 매입 플랫폼은 현재 농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투명성과 효율성을 해결하며,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 농민 소득 안정화와 쌀값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이 선도한 이 플랫폼이 전국으로 확대돼 농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 가족돌봄청소년 발굴·지원 강화한다



김한중(왼쪽 다섯 번째) 장성군수가 지난 2일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돌봄을 받아야 할 시기에 가족을 돌봐야 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 발굴과 지원을 강화한다.

장성군은 전남 국제구호개발 NGO(비정부기구) 월드비전 광주전남사업본부와 '가족돌봄청소년 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장성군과 월드비전은 지역 내 가족돌봄청소년 15명을 발굴해 각 5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했다. 이번 협약은 가족돌봄청소년과 복지사각지대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이뤄졌다.

장성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더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은 최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시행한 '2024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월드비전과의 업무협약이 취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이 미래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영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함평군,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참여 기업 모집

11일까지...1년차 100만원 지원

함평군이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1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

하고,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은 함평군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입사 1~4년차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전남에 주소를 둔 정규직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함평군은 이번 추가모집을 통해 4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1년차는 연간 100만원, 2년차부터는 분기별로 75만원, 3년차는 100만, 4년차는 125만원을 지원한다.

세부 신청자격 등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농어촌공동체과에 접수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만원 임대주택 전국적인 관심 모은 화순군 구직 청년에도 월 1만원 주거형 취업 공간

12일까지 청년하우스 입주자 모집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화순군이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하우스와 결혼장려금 등 다양한 청년정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화순군은 구직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청년하우스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하우스는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형 취업 공간을 제공해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청년하우스 1층에는 공유 공간인 스터디카페, 2·3층에는 성별이 분리된 주거 공간, 4층에는 동형 모양의 취·창업 지원 공간이 마련됐다.

신청 자격은 화순군에 거주하거나 거주를 희망하는 18살 이상 49살 이하의 무직자,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하우스에는 총 12실이 제공되며 모집인원은 17명이다. 호실은 1인실과 2인실로 나뉘지며 추첨을 통해 배정한다.

청년하우스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입주 기간은 1년이며 보증금 50만원, 임대료는 월 1만원이다. 입주자에게는 청년센터와 연계된 취·창업 단기 특강, 면접 사진 촬영비 지원, 면접 정장 무료 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화순군은 또 지난해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만원 임대주택 입주자 100

가구를 모집한 결과 657명이 몰렸다.

청년형은 50가구 모집에 606명이 지원해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혼부부형은 50가구 모집에 51명이 응모했다.

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화순군이 민간임대주택을 임차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월 임대료 1만원만 받고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정책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화순군은 내년도 결혼장려금 1000만원의 지원할 청년 예비부부 27쌍도 선정했다.

결혼장려금은 결혼 초기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신고 뒤 1년 후부터 5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총 1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결혼장려금 지원 시책에 따라 장려금(9억3200만원)을 받은 부부는 총 224쌍에 달했다. 이 중 타 시·군 전출로 지급 중지된 부부는 6쌍에 불과해 결혼장려금이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신혼부부·다자녀 주택구매 대출이자 지원, 화순형 24시 어린이집 운영, 출산·양육 지원금 등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조미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은 청년정책에 있다"며 "다양한 청년 맞춤 정책 발굴을 통해 정주인과 생활인구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담양미술협회 회원들의 작품이 전시 중인 담양군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

담양 대나무박물관 갤러리 문화예술 전시 지원

단체·동아리 등 전시공간 제공

담양군이 한국대나무박물관 갤러리의 일반대관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1998년 개관한 대나무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죽세공예박물관으로 대나무공예품 전시, 만남의 광장 등을 갖춰 많은 관광객이 찾는 담양의 주요 관광지 중 한 곳이다.

대나무박물관은 단순 대나무 관련 공예품의 전시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박물관 갤러리를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 동아리 회원들의 전시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7일까지 담양미술협회 21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그림과 공예,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의 창작 작품들이 전시 중이다.

이와 9일부터 15일까지는 '선비가 머물던 곳, 누정'을 주제로 죽향 사진동호회 회원전이 열리고, 관람객들과 소통의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19일부터 24일까지는 '우리들의 시간'을 주제로 한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캘리그래피분과의 작품 전시가 진행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지역 문예인들에게 자유로운 창작공간을 제공해 생활문화의 중심이 되는 공공시설로 발돋움하는 취지에 담겠다"며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